
스웨덴 정치체제의 변화: 스웨덴 민주당의 등장을 중심으로*

신 광 영**

이 논문은 유럽사회조사(ESS) 자료를 이용하여 2000년대 스웨덴 정치체제의 변화로 인식되는 새로운 정당들의 등장의 배경과 원인을 분석한다. 특히 스웨덴 민주당의 등장이 스웨덴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변화와 무관하게 특정 이념을 지닌 정치집단에 의해서 추동된 정치적 현상인가를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스웨덴 민주당의 등장은 사회적 변화의 산물이라기보다 특정 정치집단의 전략적 산물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스웨덴 민주당은 유럽에서 나타나는 극우 포퓰리즘 정당들과는 달리 유럽연합에 대한 반대보다 이민/이민자에 대한 반대에 기초하고 있는 단일 이슈 정당이다. 단일 이슈 정당은 일시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지만, 지속성 여부는 의문시된다.

주제어 : 극우 포퓰리즘, 스웨덴 민주당, 단일 이슈 정당, 유럽연합, 스웨덴

* 이 논문을 논평한 세 명이 심사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들의 논평이 논지를 분명히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 중앙대 사회학과

1. 문제제기

오늘날 스웨덴의 정당체제는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있다. 세계화와 같은 전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와 더불어 후기 산업사회적인 변화가 사회적인 차원에서 나타나면서, 정당 정치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정당들이 노선의 변화를 겪고 있는 것과 더불어 페미니즘 정당이나 극우 민족주의 정당과 같은 새로운 정당들이 등장하여 기존 스웨덴 정당체제의 지형이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88년 창당한 스웨덴 민주당은 2010년 총선에서 5.7% 득표하면서 의회 진출의 하한선인 4%을 넘어서 최초로 극우 정당이 스웨덴 의회에 진출하였다. 스웨덴 민주당의 의회 진출로 중도우파 정당들의 지지도가 낮아졌고(Strömbblad and Malberg, 2014: 6-7), 이는 기존 정당체제의 재편을 만들어 내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안정된 스웨덴 정당체제가 변화를 보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시각에서 논의될 수 있다. 하나는 스웨덴 정당체제의 변화가 스웨덴 사회의 구조적 변화 혹은 사람들의 의식 변화를 반영한다는 사회 중심적 시각이다.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 스웨덴에서 나타난 변화에 따른 유권자들의 이해와 관심의 변화가 일어났지만, 이들이 기존 정당들에 의해서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였고, 대단히 새로운 정당들에 의해서 대변되면서 스웨덴 정치체제의 변화가 발생했다는 시각이다. 기존 정당들의 정치 이념이나 정책 노선의 한계로 인하여 새로운 관심과 이해관계가 정치적으로 대변되지 못하면서, 이러한 틈새를 새로운 정당들이 파고 들었다는 주장이다. 대표적인 예로 스웨덴 녹색당은 환경문제에 대한 기존 정당들의 관심과 정책에 불만이 커지면서 1981년 창당되어 1988년 의회에 진출하였다 (Statistics Sweden, 1988: 13).

다른 하나는 스웨덴 정당체제의 변화가 사회구조적 변화를 반영하기보다는 정치적 갈등과 경쟁의 심화와 같은 정치적 차원의 변화로 보는 정치중심적 시각이다. 오랫동안 이념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토대로 한 정치가 스웨덴 모델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다 (Lane, 1998; Lewin, 2008;

Lijpart, 1999: 278-280; Rothstein, 1998). 그러나 점차 사회적 구조적 변화와 무관하게 새로운 가치를 내세우는 극단적인 정치 집단과 조직들이 등장하면서, 이들 조직들이 기존 정당들에 대한 비판과 도전을 제기하고, 새롭게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 총선에서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다. 정당체제의 변화가 정치권과 정당에 의해서 촉발되었다고 보는 시각이다.

스웨덴에서는 7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계급과 종교에 기반을 둔 정당체제가 구축되었다. 다른 유럽국가들과는 달리 종교에 기반을 둔 정당은 뒤늦게 정치세력화 되었다. 전통적인 좌우파 이념 대립에 기초한 스웨덴의 정당 체제는 1970년대 들어서 변화를 맞았다. 1974년 기독교 민주당의 등장으로 다른 많은 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계급과 종교라는 두 가지 균열에 기반을 둔 정당체제가 구축되었던 것이다. 1980년대 환경이라는 이슈가 새롭게 대두되었고, 이는 정치적으로 녹색당을 통해서 대변되었다. 1990년대 세계화와 더불어 가시화된 대규모 이민과 이주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대두되면서 이민에 반대하는 새로운 정당이 등장한 것이다. 계급, 종교, 환경, 이민 등 전통적인 계급균열과는 다른 새로운 사회적 균열이 등장하였고, 이를 반영하는 정당이 등장하였다. 이는 득표율 하한선 이외에는 정당 창당과 조직 활동에 아무런 제약과 규제가 없는 스웨덴 정치체제에서 가능한 변화였다.

이 논문은 2000년대 서베이 자료를 토대로 최근 스웨덴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치체제의 변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스웨덴 정치 변화의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2002년부터 유럽연합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자료를 분석하여, 최근 스웨덴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변화와 정치변화의 성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스웨덴의 정치변화의 성격을 논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유럽사회조사에서 유럽의 회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유럽화에 대한 평가와 이민 정책에 대한 태도 등을 중심으로 스웨덴 전체 사회의 변화 추이와 정당 지지 추이를 비교하여 스웨덴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치변화의 내용을 분석한다. 여기에서 사회변화는 스웨덴 사회구조 자체의 변화보다는 스웨덴 국민의 사회에 대한 의식상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며, 정치변화는 선거와 정당정치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2. 스웨덴의 정치변화

20세기 말 스웨덴 사회의 변화는 다른 유럽사회들과 마찬가지로 세계화에 따른 상품, 자본과 노동력 이동의 증가에 영향을 받았다. 또한 인구 고령화, 여성의 권익 신장과 이주자 인구 증가 등의 사회 내적인 변화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들이지만, 변화의 내용과 정도는 유럽 사회마다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2014년 5월 유럽의회 선거를 통해서 나타난 변화로서 극우 민중주의(far-right populism) 정당과 페미니즘 정당의 약진이다. 유럽연합의 탄생 자체를 부정하는 유럽 각국의 극우 민중주의 정당은 민족주의, 백인 우월주의, 이민 반대 등 다양한 정치지향을 보이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유럽연합의 기본 이념인 국민국가를 넘어선 초국가(supra-nation)로서의 유럽연합에 반대하고 있다. 개별 국가 위에 존재하는 ‘유럽연합에 대한 강한 회의(Eurosceptic)’를 유럽 여러 나라에서 극우 민중주의 정당들이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극우 민중주의의 약진은 유럽연합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도 반 이슬람주의와 반 다문화주의를 내세운 스웨덴 민주당이 2010년 총선에서 5.7% 득표하여 의회 진출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또 다시 9.67%의 지지를 얻어서, 중앙당과 기독교 민주당을 제치고 제5위 정당으로 부상하였다.

스웨덴 정치의 변화는 2005년 창당된 페미니즘 정당(Feminism Initiatives, FI)의 지지 확산에서도 찾을 수 있다. 2006년 당내 내분으로 의회진출에 성공하지 못하였지만,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5.3%의 지지를 얻어 유럽의회 진출에 성공하였다. 페미니즘 주도는 기존 결혼제도에 대한 비판과 보다 본질적인 양성평등의 실현을 내세우면서 국가의 결혼 혹은 동거 등록제도의 거부를 중요한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페미니즘 정당의 등장은 상대적으로 단일한 이슈를 중심으로 정당이 등장했다는 점과 기존의 서구 결혼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정치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웨덴 정당 정치의 새로운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계급과 종교에 기반을 둔 정당체제가 또 하나의

사회적 균열인 젠더에 기반을 둔 정당의 등장으로 변화를 맞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스웨덴 민주당과 페미니즘 정당의 등장으로 스웨덴 정당체제는 여러 가지 혼란을 보이고 있다. 1995년 유럽연합 가입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52.3%의 근소한 차이로 스웨덴이 유럽연합에 가입을 결정한 이후에도 스웨덴 좌익당을 중심으로 하는 스웨덴 좌파는 유럽연합 가입에 계속 반대를 해왔다.²⁾ 스웨덴 좌파는 ‘인민의 집’ 건설을 구로 내세우며 복지국가 민족주의(Welfare state nationalism)”를 추구하였다. 여기에서 인민은 스웨덴 국민을 의미하며, 유럽연합의 가입으로 인하여 유럽연합이라는 외부의 권력이 스웨덴 국내 정치와 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현상을 우려한 것이다 (Tragardh, 1999). 프랑스의 Front National이나 벨기에의 The Belgian Vlaam Blok과 같은 우파 민족주의 정당들이 유럽연합에 반대했던 것과는 달리 스웨덴에서는 좌익당이 ‘스웨덴’ 전통으로 여겨지는 복지국가, 비동맹, 자유와 독립성을 지키기 위하여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반대했다. 그러나 스웨덴 좌익당은 이민에 대해서는 개방적이었으며, 특히 정치적 난민들에 대해서 대단히 관용적이었다. 다문화·다인종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는 좌파의 국제주의적 전통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러나 우익 민족주의는 스웨덴 내의 나치즘 조직과 스웨덴에서 이민자들이 늘고, 스웨덴이 다문화사회로 변화게 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품은 집단들에 의해서 1988년 신민주당(Ny Demokrati)로 발전하였다. 1991년 총선에서 신민주당(Ny Demokrati)은 6.7%라는 예상하지 못한 높은 득표율을 얻었으나, 1994년 총선에서 완전히 몰락하였다. 그러나 총선에서의 높은 지지 현상은 스웨덴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징후로 간주되었다. 이후 스웨덴 민주당으로 다시 등장한 극우 민족주의 세력은 2002년 1.4% 그리고 2006년 2.9% 지지를 확보하여 점차 지지를 넓혀갔고, 드디어 2010년 총선에서 5.7%의 지지를 얻어서 국회의석 20석을 차지하는데 원내 진출에 성공하였다.

2) 스웨덴 좌파 중에서 좌익당은 적극적으로 유럽연합에 반대를 해왔지만, 사민당은 유럽연합에 찬성을 해왔다. 유럽연합 지지 여부 자체가 온건 좌파와 급진 좌파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여겨질 정도로 유럽연합 지지여부는 정치적으로 첨예한 이슈였다.

스웨덴 민주당은 이민자의 증가로 인한 인종적-국가적 정체성의 약화를 문제로 제기하는 사회문화적 차원의 동원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다인종-다문화주의가 좌파가 내세우는 이념이라면, 극우 민족주의는 민족적 정체성의 유지와 전통적 가치를 강조하는 사회적 보수주의를 주된 이념으로 하고 있다 (Rydgren 2010: 58). 스웨덴 민주당은 스웨덴 시민당이나 보수당의 다문화주의에 기초한 이민정책이 실패했다고 비판하고 이민에 반대하는 정강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11%의 스웨덴 시민들이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인구의 20%가 이민자 가족에 속하며, 인구 1,000명 당 29명 정도가 정치적 망명자들이다 (Rydren 2010: 65). 기존의 정당들이 경제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경쟁을 하지만, 스웨덴 민주당은 사회적, 문화적 이슈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징을 보여준다.

페미니즘 주도(*Feministiskt Initiativ*)는 2005년에 창당하여, 2006년 총선에서 0.68% 지지를 얻는데 그쳤고, 200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약간 증가한 2.2%의 지지를 얻었지만, 2010년 선거에서 다시 0.40% 지지밖에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5.3%의 지지를 얻어서 유럽의회에 진출하는데 성공하였다. 페미니즘 주도는 남성과 여성과의 권력 관계를 포함한 모든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 대해서 평등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기존 스웨덴 사회체제를 비판하고 권력 관계에 기초한 지배와 억압의 타파를 내세우고 있다 (FI, 2014). 페미니즘 주도는 가부장제 권력과 불평등 관계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불평등과 억압의 교차성(intersectionality)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페미니즘 주도는 페미니즘 반인종주의(antiracistisk feminism)을 명시적으로 내세워 있어서 스웨덴 민주당과는 대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백인 페미니즘에 대한 거부를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불평등의 교차성을 실제적으로 내세우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정당의 특징은 완전하게 단일 이슈만을 다루는 정당은 아니지만, 기존의 정당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단일 이슈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정당들이 상대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이슈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주변적인 이슈에 초점을 맞추는 ‘틈새 정당’이라고 볼 수 있다. 스웨덴 민주당은 이민/국가 정체성 문제를 핵심적인 정당 이슈로 제기

했다. 이미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이민정책이 핵심적인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었지만, 스웨덴에서는 이민은 주변적인 이슈로 남아있었다. 스웨덴 민주당이 중심으로 이민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스웨덴에서도 이민/이민자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기에 이르렀다(Odmalm, 2011). 기존 정당들이 이민/이민자 문제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민/이민자 문제는 유권자들에게도 가장 부각되지 않는 이슈로 인식되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역대 선거에서 이민/이민자 문제는 유권자들의 관심이 가장 적은 이슈였다. <표 1>은 지난 세 번에 걸친 선거에서 당을 선택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한 이슈라고 유권자들이 응답한 비율이다. 2010년 선거에서 가장 높은 비율은 고용과 관련된 당의 정책과 역량이 가장 중요하게 유권자들의 투표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문제는 역대 선거에서 계속해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남아있다. 그 다음이 교육과 관련된 이슈였고, 세 번째가 노인 돌봄과 관련된 이슈였다. 이전 선거와 마찬가지로 2010년 선거에서도 난민/이민 문제는 상대적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2010년 선거에서 난민/이민 문제는 2006년 선거와 거의 비슷하게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슈 중 하나였다 (Nilsson, 2014). EU와 유로화에 관한 이슈도 상대적으로 주변적인 이슈였다. 전체적으로 2010년 선거에서 쟁점은 이전 선거에 비해서 약화되었다. 즉 참여한 쟁점이 이전 선거에 비해서 적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정당 선택에 영향을 미친 이슈라는 점에서 2010년 선거는 2002년 선거에 비해서 쟁점이 참여하지 않은 밋밋한 선거였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2010년 선거는 스웨덴 민주당이나 페미니즘 주도가 특별히 자신들이 관심이 있는 이슈를 제기하여 유권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선거도 아니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주변적인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 주도나 스웨덴 민주당이 낮은 관심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치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권자-정당 사이의 관계가 변하면서 만들어진 기회를 새로운 정당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스웨덴에서 정당 지도자의 이미지가 투표에 미치는 효과가 점차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Holmberg and Oscarsson, 2011: 48-49), 새로운 정당들의 지도자들은 기존 정치 지도자들과는 매우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어 당의 지지를 높이는데 성공

하였다.

<표 1> 지난 선거에서 주요 쟁점들(대단히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2002	2006	2010
고용	51	55	53
교육	67	54	53
건강의료	64	51	51
경제	56	50	47
노인 케어	53	45	40
아동보호	47	41	43
법과 질서	47	41	32
양성평등	44	41	37
에너지/원자력	29	35	30
기업환경	32	33	29
세금	36	32	30
환경	34	31	31
난민/이민	32	25	26
외교/안보	30	23	19
유럽연합, 유로화	28	20	15

자료: Swedish National Data Service(2002, 2006, 2010)

참고: 무응답 제외

3. 자료와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유럽의 사회변동을 조사하기 위한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자료 가운데 스웨덴 조사 자료이다. 유럽사회 조사는 영국 City University of London에 본부를 두고 이루어지는 조사로서 주로 태도, 의식과 행위 변화에 초점을 맞춘 조사이다. 이 조사는 2001년부터 2년 단위로 유럽사회조사 14개 회원국과 업서버로 참여하는 2개 나라와 간헐적으로 참여하는 4개 나라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조사 자료이며, 스웨덴 조사는 2002년부터 격년으로 지속되고 있다

(http://www.europeansocialsurvey.org/data/country_index.html).

유럽사회조사의 표집은 15세 이상의 개인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확률 표집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최종 표본의 크기는 각국의 인구규모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며, 스웨덴의 경우는 2002년 1,999에서 2012년 1,847이었다. 스웨덴 사회조사는 1시간 정도의 면접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조사로서 모든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정치적 태도와 이데올로기에 관한 설문 응답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설문은 좌파-우파 성향에 대한 설문, 유럽연합에 대한 평가 설문, 유럽의회에 대한 평가 설문, 이민에 관한 설문과 지지정당에 관한 설문이다.

분석은 주로 시계열 비교 분석과 스웨덴과 유럽 전체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유럽사회조사의 장점은 동일한 설문조사를 동일한 표집에 근거하여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변수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국가간 비교와 동일한 국가의 경우 시기별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유럽연합이 출범한 이후 동시적인 변화를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사회조사는 유럽연합 전체와의 비교를 통해서 스웨덴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4. 스웨덴의 사회의식 변화

그렇다면, 스웨덴에서 얼마나 스웨덴 사회의 변화와 관련된 여러 사항에 대한 태도에서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는가? 여기에서는 역대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관심을 보인 이슈와 유럽연합과 유럽의회에 관한 태도를 통해서 스웨덴 사람들의 사회의식 변화를 추적하고자 한다. 유권자들이 관심을 보인 이슈는 선거에서 영향을 준 쟁점이 되는 국내적인 이슈들이었다. 반면, 유럽연합과 유럽의회에 관한 태도는 국제적인 이슈와 관련된다.

그렇지만, 유럽연합과 유럽의회에 관한 태도는 서로 다른 차원의 개방과 변화의 방향을 보여준다. 유럽연합에 대한 태도는 초국가적인 실체로서의 유럽연합에 대한 지지 정도와 직접 관련이 되지만, 유럽의회에 대한 태도는 유럽의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동일한 차원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외부에 존재하는 정치권력 주체에 대한 인식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수준에서 유럽연합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표 1>은 2000년대 실시된 선거에서 스웨덴 유권자들이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한 이슈들의 리스트이다. 역대 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끈 이슈들은 고용, 교육, 건강, 경제와 노인 케어와 같은 국내적인 이슈들이었다. 지난 3번의 선거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이들 이슈들은 계속해서 많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끈 이슈들이었다. 반면, 외부와 관련된 이슈들인 이민/난민, 외교/안보, 유럽연합/유로화에 관한 관심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페미니즘 주도가 내세운 양성평등 이슈는 어느 정도 관심을 끌고 있는 이슈라고 볼 수 있지만, 앞의 세 가지 이슈는 상대적으로 주변적인 이슈들이었다.

역대 선거에서 이슈를 중심으로 한 유권자들의 의식변화를 추적한다면, 2000년대 들어서 스웨덴에서 유권자들의 의식과 태도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된 이슈들은 계속해서 유권자들의 주된 관심을 끄는 이슈들이었지만, 주변적인 이슈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오히려 더 약화되었다. 이민/난민, 외교/안보와 유럽연합/유로화에 대한 관심은 대체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점은 스웨덴 사회가 겪은 변화와 관계없이 스

웨덴 유권자들의 사회 인식과 태도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표 2> 유럽연합에 대한 평가, 2004-2012 (단위: %)

	이미 과도함					중립					더 진행	
스웨덴	0	1	2	3	4	5	6	7	8	9	10	100
2004	8.5	4.3	8.5	12.8	10	23	10.3	9.8	7.9	1.9	2.9	100
2006	5.5	3.6	8.1	9.9	10	27.1	11.9	12	7.7	2.1	2.2	100
2008	3.8	3.4	6.5	8.8	12	30.1	11.8	12	7.4	2.2	2.4	100
2012	6.3	3.4	6.9	10.9	11	30.4	11	9.9	7.1	1.2	2.1	100
EU												
2004	6.1	3.5	6.3	8.3	8.3	22.1	10.4	12	11	4.5	7.7	100
2006	5.8	4	7	9.3	8.8	21.9	10.4	12	10	4.1	6.9	100
2008	5.2	3.7	6.2	8.8	8.6	22.2	10.2	12	10	4.9	8.3	100
2012	6.5	4.1	7	9.4	8.9	22.2	9.9	11	9.4	4	8.1	100

<표 2>는 유럽연합에 대한 스웨덴의 여론과 유럽연합 전체의 여론 추이를 보여준다. 스웨덴의 경우, 2004년부터 2012년 사이에 유럽 연합에 대한 평가에서 두드러진 변화는 중립적인 의견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중립적인 의견은 2004년 23%에서 2012년 30.4%로 7.4% 포인트 증가하였다. 반면, 부정적인 의견은 2008년까지 줄어들다가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다시 증가하였지만,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었다. 유럽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2004년 4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2년에는 38.5%로 줄어들었다. 반면, 긍정적인 평가는 2004년 32.8%에서 2008년 35.7%로 증가하였다가, 2012년 31.3%로 줄어들었다.

스웨덴 국민들이 유럽연합에 대해서 갖는 평가적인 태도는 유럽연합 전체 회원국들의 국민들이 유럽연합에 대해서 갖는 평가적인 태도보다는 덜 긍정적이었다. 2002년 유럽연합이 이미 과도하다고 보는 의견이 유럽연합보다 스웨덴에서 더 높았다. 그러나, 2012년에 이르러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스웨덴에서 유럽연합에 대한 태도는 유럽연합 평균보다 중립적인 응답 비율이 더 높아서 유보적인 태도가 여전히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유럽의회에 대한 평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스웨덴에서는 2002년부터 2012년 사이 유럽의회에 대한 불신은 점차 낮아지고, 신뢰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2년 현재 스웨덴에서 유럽의회를 신뢰한다는 비율보다 불신을 보이는 비율이 높지만,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2년 불신한다는 응답은 54%이었는데, 2012년에는 40.9%으로 13.1% 포인트 줄어들었다. 대신에 신뢰의 비율은 2002년 25.4%에서 2012년 36.1%로 10.7% 포인트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유럽의회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에서 긍정적인 평가로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3> 스웨덴과 유럽연합 국민들의 유럽의회에 대한 신뢰 (단위: %)

	불신										신뢰	
스웨덴	0	1	2	3	4	5	6	7	8	9	10	
2002	9.9	5.6	9.9	14.2	14.4	20.7	11.6	8.7	4.1	0.4	0.6	100
2004	10.6	5.8	10.6	14.5	14.7	19.8	9.1	9.1	4.1	1.3	0.5	100
2006	6	5.2	7.6	12.7	13.5	22.9	13.3	11.5	5.5	0.8	1	100
2008	6.6	2.9	6.7	10	15.7	22.6	16.2	10.1	7.4	1.4	0.5	100
2010	4.3	3.4	6	9.6	12.6	23.1	16.3	13.9	7.5	2.7	0.7	100
2012	5.8	3.3	6.2	11.8	13.8	23	14.5	13	6.5	1.2	0.9	100
EU												
2002	7.4	4.2	7	10.1	11.2	23.7	12.9	11.6	7.7	2.5	1.9	100
2004	8.3	5	7.7	10.4	10.8	22.6	12.1	11.3	7.2	2.5	2	100
2006	8.3	4.8	7.1	10.2	11.4	22.9	12.6	11.2	7.4	2.6	1.8	100
2008	10.2	5.4	7.2	9.8	10.6	21.9	12.3	10.6	7.4	2.6	2	100
2010	11.4	6.2	8.3	10.9	11.5	21.3	10.8	9.8	6.2	2.1	1.5	100
2912	11.1	5.8	8.2	10.7	10.9	20.3	11.6	10.2	6.8	2.3	2.2	100

스웨덴 민주당의 등장으로 2010년 선거에서 쟁점으로 부각된 이민/난민과 관련된 태도변화가 스웨덴에서 나타났는가? 정치적 변화와는 달리, 2000년대 들어서 스웨덴에서 이민/이민자에 대한 평가는 오히려 개선되었다. <표 4>는 “이민이 스웨덴을 보다 살지 좋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보다 살기 나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의 답변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민이 스웨덴 사회를 더 나쁘게 만들 것이라는 응답(0에서 4까지)의 비율은 2002년 15.6%에서 2010년 11.4%로 줄어들었다가 2012년 15.1%로 이전 수준으로 높아졌다. 반면에 이민이 스웨덴 사회를 더 낫게 만들 것이라는 응답은 2002년 59.6%에서 2012년 63.6%로 오히려 더 높아졌다. 이민에 대한 중립적인 의견이 줄어든 반면, 우호적인 의견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2000년대 들어서 스웨덴에서 이민/이민자에 대한 태도가 특별히 비우호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스웨덴에서 이민/난민에 대한 비우호적인 태도는 2000년대 초부터 15% 내외로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 최근에 들어서 이민/난민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형태로 변한 것이 아니라, 이민/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일정 정도 과거부터 존재해왔다. 과거에는 이민/난민 이슈를 정치적으로 부각시키는 정당이 없었지만, 2010년 이를 정치적으로 내세우는 정당이 등장하면서, 이민/난민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태도를 드러낼 수단을 갖게 되었다..

<표 4> 스웨덴의 이민/이민자에 대한 태도, 2002-2012 (단위: %)

	부정적					중립	긍정적					
년도 / 응답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2002	1.4	1	3	4.9	5.2	25	11	15	20	6.9	6.8	100
2004	1.4	1	3	4.9	5.2	25	11	15	20	6.9	6.8	100
2006	1.5	1	3	3.9	6.3	25	11	19	16.4	6.7	6.8	100
2008	1.3	0.5	2	4	6	22	14	18	17.8	6.8	7.4	100
2010	0.9	1	1	3.9	4.4	22	11	18	19.8	7.6	9.9	100
2012	1.1	1.1	3	4.6	5.8	21	11	15	21.6	6.2	9.7	100

선거 쟁점과 유럽사회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사회적인 차원에서 최근 들어서 큰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유럽연합과 이민/난민에 대한 태도에서 큰 변화는 없었다. 유럽통합과 이민자 증가와 같은 사회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한 스웨덴 사람들의 태도에서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던 것이다.

5. 스웨덴 사회와 정당과의 관계

스웨덴 사회의 변화를 진단하기 위하여, 먼저 이념적 변화를 살펴보면 스스로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약간 줄어든 반면,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약간 늘었다. <표5>는 스웨덴 사회의 이념적 지형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유럽사회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스웨덴 사회조사에서 나타난 스웨덴 좌우이념 분포를 보여준다.

스스로의 정치의식을 좌파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2002년 40.2%였고, 중도 22.2%, 우파 37.6%이었다. 좌우파 비율은 크게 변하여, 2012년에는 좌파 32.4%, 중도 24.1%, 우파 43.4%로 바뀌었다. 2010년 우파로 크게 기울어졌던 정치적 이념 성향은 (좌파 29.2%, 중도 21.2%, 우파 49.6%) 2012년 상당히 완화되었지만, 아직도 10% 이상의 우파 정치의식을 지니고 있다. 좌파와 우파 이념 성향과 관련된 자기정체성은 대단히 주관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위치를 스스로 파악하는 척도라는 점에서 스웨덴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는 2000년대 들어서 나름대로 무시할 수 없는 변화라고 볼 수 있다.

<표 5> 스웨덴 좌우이념 분포 2002-2012년 (단위: %)

	좌			중도						우	
	0	1	2	3	4	5	6	7	8	9	10
2002	5.2	2.6	8.9	13.2	10.8	22.2	8.5	12.5	11.2	2.4	2.4
2004	2.7	1.8	7.1	11.0	10.2	27.5	9.6	13.4	10.6	2.9	3.2
2006	3.3	2.9	5.9	11.4	11.1	21.3	11.3	16.3	10.8	3.4	2.4
2008	3.0	2.8	6.5	11.8	11.7	23.9	10.0	15.8	9.7	2.3	2.6
2010	2.6	1.7	6.1	9.3	9.5	21.2	11.0	17.2	13.8	4.1	3.5
2012	3.1	1.8	4.8	11.3	11.4	24.1	9.4	17.3	10.9	2.8	3.0

<표 6>는 좌우 이념에 따라서 가깝게 느끼는 정당 분포를 보여준다. 좌파라고 스스로 규정 한 사람들의 경우 (0에서 4까지)은 사민당, 녹색당과 좌익당과 일체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수적인 사람들(6에서 10까지)은 대부분 중앙당(C), 인민당(FP), 기민당(KD), 보수당(M)과 일체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라고 답한 사람들은 사민당과 녹색당과 일체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보수당들과의 일체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가장 보수적인 이념을 지니고 있는 응답자들(10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75.6%)이 보수당과 가깝다고 응답하였다. 가장 좌파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사민당(49.0%)과 좌익당(41.2%)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과 비교하여, 보수당의 우파 결집력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대 들어서 사민당과 보수당의 결집력을 비교하면, 사민당의 좌파 결집력은 약화되고, 보수당의 우파 결집력은 강화되었다. 2002년 온건 좌파(3과 4로 응답한 사람)는 각각 75.7%와 72%이었으나, 2012년에는 60.1%와 68.5%로 낮아졌다. 대신 온건 좌파의 녹색당 지지는 7.2%와 9.1%에서 20.9%와 20.8%로 높아졌다. 강성 좌파라고 응답한 사람들(좌우 이념에서 0과 1로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중 2002년 5.6%가 사민당, 좌익당과 녹색당 이외의 정당과 일체감을 가졌으나, 2012년 7.8%로 늘었다 (페미니즘 주도 1.3%, 해적당, 1.3%, 스웨덴 민주당 2.6%, 기타 2.6%). 반면, 보수당의 결집력은 강성 우파의 경우(9와 10으로 응답한 사람) 2002년 각각 46.3%와 57.6%가 보수

당을 지지하였지만, 2012년에는 보수당 지지가 73.2%와 75.6%로 높아져서 보수층의 보수당 집중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극우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10로 응답한 경우), 보수당을 제외한 기존의 보수 정당들을 지지하는 비율은 2002년도 33.3%로 높았으나, 2012년 0%으로 낮아지고 대신에 이 중의 8.9%가 스웨덴 민주당과 가장 지지한다고 응답하여, 보수층 유권자와 정당과의 관계가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스웨덴 민주당의 등장으로 보수당을 제외한 기존 보수적인 정당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지지 정당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6> 20012년 좌우 이념에 다른 정당 지지 (단위: %)

	C	P	KD	G	M	S	V	FI	PI	SD	기타	전체	N=
좌 0	0	0	0	5.9	0	49.0	41.2	0	0	2	2	100	51
1	0	0	0	11.1	0	48.1	25.9	3.7	3.7	3.7	3.7	100	27
2	3	0	0	12.1	1.5	60.6	19.7	0	1.5	1.5	0	100	66
3	0.7	0	0	20.9	0.7	60.1	13.1	1.3	0	2	1.3	100	153
4	0.8	1.5	1.5	20.8	0	68.5	4.6	0	0.8	0.8	0.8	100	130
5	5.7	5.7	4.3	20.6	9.1	44.5	1	0	1.4	7.7	0	100	209
6	3.2	16.8	6.3	18.9	28.4	18.9	0	0	2.1	4.2	1.1	100	95
7	7.8	12.6	4.4	4.4	56.3	7.3	0	0	0.5	5.8	1	100	206
8	4.1	5.5	3.4	1.4	78.8	0.7	0	0	0.7	4.1	1.4	100	146
9	7.3	4.9	2.4	0	73.2	2.4	0	0	0	7.3	2.4	100	41
우 10	0	0	0	2.2	75.6	11.1	0	0	0	8.9	2.2	100	45
전체	3.8	5.6	2.7	12.5	29.3	33.5	5.9	0.3	0.9	4.4	1	100	1169

참고: C는 중앙당, FP 인민당, KD 기민당, MG, 녹색당, M 보수당, S 시민당, V 좌익당, P 해적당, SD 민주당, O 기타

정당체제의 안정성은 정당의 성격과 지지자들의 성향이 일치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정당의 이념과 활동이 유권자들의 관심 및 이해와 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당의 이념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성향이 일치하지 않으면, 정당의 사회적 기반을 매우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좌우 정치적 이념은 전통적으로 정당의 사회적 기반을 분석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었다. 이

러한 기준을 사용한다면, 새롭게 등장한 정당들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이고 있다. 페미니즘 주도는 모두 좌파적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스웨덴 민주당의 지지 기반은 이념적으로 다양하다.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스웨덴 사민당의 가장 큰 지지 기반은 이념적으로 중도(30.8%)이고 좌파도 13.4%에 달하고 있다. 우파적 기반이 55.8%로 가장 강하기는 하지만, 기존 보수당의 우파적 기반 93.9%와 비교하면, 훨씬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당이 내세우는 이념과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의 격차가 크게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러한 점이 극우 정당의 성공의 원인이 될 수 있었다(Rydgren 2005). 이러한 양상은 해적당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급진적인 우익 정당들이 의도적으로 다차원적인 이슈들 가운데서 기존의 이슈들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기존의 정당들이 소홀히 했거나 무시했던 이슈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단호한 입장을 취하여 기존 정당들을 공격하는 방식을 택했다 (Rovney, 2013). 그리고 이러한 전략은 새로운 정당들의 존재를 부각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표 7> 2012년 좌우 이념에 따른 정당 지지 (단위: %)

이념	C	FP	KD	MG	M	S	V	FI	P	SD	O	전체
좌0	0	0	0	2.1	0	6.4	30.4	0	0	1.9	8.3	4.4
1	0	0	0	2.1	0	3.3	10.1	33.3	10	1.9	8.3	2.3
2	4.5	0	0	5.5	0.3	10.2	18.8	0	10	1.9	0	5.6
3	2.3	0	0	21.9	0.3	23.5	29	66.7	0	5.8	16.7	13.1
4	2.3	3	6.2	18.5	0	22.7	8.7	0	10	1.9	8.3	11.1
중도5	27.3	18.2	28.1	29.5	5.5	23.7	2.9	0	30	30.8	0	17.9
6	6.8	24.2	18.8	12.3	7.9	4.6	0	0	20	7.7	8.3	8.1
7	36.4	39.4	28.1	6.2	33.8	3.8	0	0	10	23.1	16.7	17.6
8	13.6	12.1	15.6	1.4	33.5	0.3	0	0	10	11.5	16.7	12.5
9	6.8	3	3.1	0	8.7	0.3	0	0	0	5.8	8.3	3.5
우10	0	0	0	0.7	9.9	1.3	0	0	0	7.7	8.3	3.8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N=	44	66	32	146	343	392	69	3	10	52	12	1169

참고: C는 중앙당, FP 인민당, KD 기민당, MG, 녹색당, M 보수당, S 사민당, V 좌익

당, P 해적당, SD 민주당, O 기타.

<표 8> 지지정당 별 EU에 대한 평가 (단위: %)

정당	EU 평가											
	0	1	2	3	4	5	6	7	8	9	10	Total
C	0	5	12.5	12.5	10	27.5	7.5	15	7.5	0	2.5	100
FP	0	4.8	4.8	12.7	11.1	28.6	14.3	11.1	11.1	0	1.6	100
KD	12	9.1	12.1	12.1	9.1	21.2	12.1	9.1	3	0	0	100
G	2.8	1.4	6.9	9	16	27.8	12.5	13.9	6.2	0.7	2.8	100
M	3.3	2.7	3.3	10.4	11	30	13.1	11.3	10.4	2.1	2.7	100
S	7.9	4.7	7.9	11.1	11.1	30.3	9.5	7.4	7.1	0.5	2.4	100
V	19	7.2	11.6	10.1	10.1	30.4	1.4	7.2	1.4	1.4	0	100
FI	0	0	0	66.7	0	33.3	0	0	0	0	0	100
P	39	0	0	7.7	15.4	0	7.7	0	23.1	7.7	0	100
SD	18	8.2	10.2	16.3	4.1	14.3	4.1	12.2	4.1	2	6.1	100
기타	18	9.1	0	9.1	9.1	27.3	18.2	9.1	0	0	0	100
전체	6.8	4.1	6.7	11	11.2	28.4	10.5	10	7.7	1.1	2.4	100

참고: C는 중앙당, FP 인민당, KD 기민당, MG, 녹색당, M 보수당, S 사민당, V 좌파당, P 해적당, SD 민주당, O 기타

극우 민족주의 정당들의 새로운 특징은 세계화에 대한 반대이며, 유럽적 상황에서는 유럽연합에 대한 반대이다. 이것은 각기 다른 이유이지만, 좌파와 우파가 공유하는 목표라는 점에서 유럽 현실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을 보여준다. <표 8>은 유럽연합에 대한 평가이다. 유럽연합이 이미 지나치게 권력이 커진 상황이라는 인식(0)에서부터 유럽연합의 권력이 더 강해져야 한다는 인식(10)중에서 지지 정당에 따른 차이를 보여준다. 유럽연합에 가장 비판적인 사람들은 해적당 지지자들로서 62.1%가 유럽연합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좌파당 지지자들도 58%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서 스웨덴 민주당 지지자들 56.8%보다 높았다. 기독교 민주당 지지자들도 54.4%가 유럽연합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사민당 지지자들도

42.7%가 유럽연합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서, 지지 정당과 무관하게 유럽연합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확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보수당 지지자들 가운데서도 30.7%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유럽연합 이슈보다 보다 분명하게 제도권 정당과 스웨덴 민주당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민/난민에 관한 이슈였다. 2010년 극우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스웨덴 민주당이 원내 진출에 성공한 주된 요인은 상대적으로 주변적인 이민/난민 이슈를 활용하는데 성공한 것이었다. 스웨덴 민주당은 다수는 아니지만 일정하게 존재하는 이민에 대한 비우호적인 유권자들을 결집시킬 수 있었다. 이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역대 선거에서 기타 정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고, 2010년 선거에서 스웨덴 민주당이 이들을 지지세력으로 통합하는데 성공하였다.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2000년대 총선에서 원내에 진출하지 못한 기타 정당에 대한 지지자들 가운데 이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매우 높았고, 스웨덴 민주당은 이들을 결집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점차 일반 시민과는 매우 다르게 이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일부 유권자들을 결집시킨 결과로 2010년도와 2012년 스웨덴 민주당 지지자들과 일반 대중 간의 이민에 대한 태도는 더욱 큰 격차를 보이게 되었다.

<표 9> 원내로 진출하지 못한 기타 정당 지지자들과
전체 응답자의 이민/이민자에 대한 태도 (단위: %)

	부정적	중립	긍정적	전체
2002	44.8(24.5)*	22.0(24.5)	33.4(49.8)	100(100)
2004	30.1(15.6)	22(24.8)	47.7(59.6)	100(100)
2006	24.2(15.8)	21.0(25.1)	54.8(59.1)	100(100)
2008	57.6(13.9)	13.2(21.9)	29.7(64.0)	100(100)
2010*	62.8(11.4)	26.0(22.2)	10.8(66.5)	100(100)
2012*	72.3(15.1)	15.0(21.3)	9.5(63.6)	100(100)

참고 * 항의 수치는 기타 정당 지지자들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이고 괄호 안의 수치는 전체 응답자의 이민에 대한 태도이며, 2010과 2012년 기타 정당 지지자는 스웨덴 민주당 지지자.

그리하여 이민에 대한 인식은 지지 정당 별로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 <표 8>은 2012년 조사에서 나타난 지지 정당 별 이민자에 대한 인식이다. “이민이 스웨덴을 보다 나쁘게 만들 것인가(0) 아니면 더 좋게 만들 것인가(10)”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지지 정당 별로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났다. 보수정당 중에서도 인민당(FP) 지지자들 중의 92.5%가 이민자들이 스웨덴 사회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본 반면, 스웨덴 민주당 지지자의 75.5%가 이민자들이 스웨덴 사회를 더 나쁘게 만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기존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스웨덴 민주당과 해적당 지지자들의 경우 이민을 부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스웨덴 민주당 지지자들의 경우 가장 두드러진 점은 이민/이민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유럽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유럽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이민/이민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스웨덴에서는 유럽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은 반면, 이민/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낮지만, 스웨덴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예외적으로 이민/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점은 스웨덴 민주당이 단일 이슈인 이민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적 동원을 한 정당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표 10> 지지 정당별 이민자에 대한 인식 2012 (단위: %)

	비우호 0	1	2	3	4	중립 5	6	7	8	9	우호 10	Total
정당지지												
C	0	2.3	0	0	4.5	27.3	15.9	9.1	27.3	4.5	9.1	100
FP	0	0	0	3	4.5	10.6	10.6	24.2	27.3	10.6	9.1	100
KD	0	0	0	3.2	9.7	25.8	12.9	16.1	16.1	9.7	6.5	100
G	0	0.7	0	0.7	4.8	19.7	10.2	15.6	26.5	6.1	16	100
M	0.9	0.3	2.1	3.6	6.2	25.4	10.9	15.4	20.4	7.4	7.4	100
S	0.3	1.3	3.1	5.4	5.6	20.5	12	17.6	21.2	4.6	8.4	100
V	0	0	1.4	4.3	0	17.1	7.1	7.1	28.6	10	24	100

FI	0	0	0	0	0	33.3	0	0	33.3	0	33	100
P	16.7	0	0	16.7	8.3	41.7	0	0	16.7	0	0	100
SD	13.2	9.4	17	20.8	15.1	15.1	3.8	5.7	0	0	0	100
기타	0	0	0	7.7	7.7	7.7	15.4	15.4	23.1	7.7	15	100
전체	1.1	1.1	2.5	4.6	5.8	21.3	10.8	15.3	21.6	6.2	9.7	100

참고: C는 중앙당, FP 인민당, KD 기민당, MG, 녹색당, M 보수당, S 사민당, V 좌익당, P 해적당, SD 민주당, O 기타

새로운 정당들이 내세우는 이슈들이 전통적인 사회적 균열인 계급이나 종교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이민/난민이나 유럽화 등 상대적으로 기존 정당들이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슈들이다. 이러한 이슈들은 새롭게 부각된 이슈들은 아니지만, 스웨덴에서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던 소수의 의견이었다. 전통적인 진보-보수와는 매우 다른 차원의 이슈들로서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지닌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사회적인 변화의 차원이 아니라 이슈화되지 못했던 이슈를 정치 집단이 선거 국면에서 이슈화하면서 정치 쟁점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정당과 정당 지도자의 능력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³⁾ 이러한 정당들은 정치적 담론을 통한 ‘동원 기술(technology of mobilizing)’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구조적인 균열에 기초한 전통적인 정당과 유권자와의 관계에 비해서 훨씬 유동적이고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다. 당의 지지가 국면적 상황적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당은 상황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슈 쟁점화에 성공하여 일시적으로 지지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을 하는 일반적인 정당으로 부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3) 스웨덴 민주당 당수 지미 오케손(Jimmie Åkesson)은 보수당 청년 당원으로 출발하여 1995년 16세 스웨덴 민주당 청년협의회에 가입하여 스웨덴 사민당 당원이 되었다. 그는 웹 디자이너 경력을 갖고 있는 35세의 젊은 정치인으로 전통적인 나이 든 극우 지도자들과 차별성을 지니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 2005년 창당한 페미니즘 주도의 지도자인 규드룬 쉬만(Gudrun Schyman)은 좌익당 지도자였으나, 당의 여성 정책에 불만을 품고 독립적으로 활동하여 유명해진 여성주의자였고, , 2006년 창당된 해적당 지도자 리카르트 팔크빈예(Richard Falkvinge)은 IT업체 대표였다.

볼 수 있다.

6. 결론

이 논문은 스웨덴 민주당의 등장을 중심으로 2000년대 스웨덴 정치체제의 변화를 추적하고 변화의 원인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새로운 정당들이 등장하여 기존의 정치체제의 변화를 겪고 있는 스웨덴 정치체제 변화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하여,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유럽사회조사의 일부로 이루어진 스웨덴 사회조사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결론적으로 2000년대 들어서 보다 뚜렷하게 가시화된 스웨덴 정당체제의 변화는 무엇보다도 사회 혹은 유권자의 변화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정치 집단에 의해서 주도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웨덴 민주당이 내세우는 유럽연합이나 이민/난민 반대 여론은 2000년대 들어서 늘어나지 않았다. 유럽연합과 유럽의회에 관한 여론은 오히려 개선되었고, 이민/난민에 대한 여론은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스웨덴 민주당의 등장은 일정 수준으로 존재해 온 여론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는데 성공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스웨덴 민주당과 같이 단일 이슈 중심의 정당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기존 정당들이 특정 이슈에 대해서 냉담하거나 혹은 무능력하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은 이슈를 정치적인 이슈로 부각시키고 그에 기초하여 지지를 확보하는 새로운 정당들의 전략은 정치적으로 주변화된 이슈를 활용하는 틈새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틈새전략은 새로운 정당의 지도자 개인의 인기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스웨덴에서 나타난 정치체제의 변화가 정당, 투표행위, 유권자와 정당간의 관계 등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점차 합의의 정치에서 경쟁과 비판이 더 격해지는 갈등적인 정치로의 변화는 부정하기 힘들지만, 스웨덴 정치체제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특정 정치세력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이나 이데

올로기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정치적 담론을 만들어 대중을 동원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미디어를 활용한 대중동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새롭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20세기 내내 스웨덴 정치가 기본적으로 그러한 정치과정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리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다.

오늘날 다양한 대안적 미디어의 발달로 주류 담론과는 다른 ‘대안적 담론’의 유포와 대중화가 용이해졌다. 일종의 정치적 틈새를 활용한 새로운 정당들의 동원기술은 인터넷과 SNS를 통한 대안적 담론을 통해서 훨씬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상대적으로 단일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기존 정당들과의 차별화를 내세우면서, 특정 이슈에 불만을 품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정당의 노선과 유권자들의 정치적 태도가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당 자체가 지속적이고 안정된 사회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새로운 정당들이 기존 정당처럼 다차원적인 이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갖는 정당으로 바뀌거나 혹은 사회적 지지 기반보다는 대중 동원을 통한 담론 정치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선택의 기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14년 9월 스웨덴 총선은 이러한 변화의 양상을 좀 더 분명하게 보여 줄 것이다.

《참고문헌》

- Baubock, R. 2008. "What went wrong with liberal multiculturalism," *Ethnicities* 8: 271-276.
- Blytz, Mark. 2001. "The Transformation of the Swedish Model: Economic Ideas, Distributional Conflict and Institutional Change," *World Politics* 54: 1-26.
- Dahlstedt, Magnus. 2008. "The Politics of Antivation: Technologies of Mobilizing "Multiethnic Suburbs" in Sweden," *Alternatives* 33: 481-504.
- European Social Survey, (2001). *European Social Survey Core Questionnaire Development - overview*. London: Centre for Comparative Social Surveys, City University London.
- Holmberg Sören and Henrik Oscarsson. 2011. "Party Leaders Effect on the Vote," *Political Leaders and Democratic Elections* ed. By Kees Alart, André Blais and Herman Schmitt, Oxford University Press, pp.35-51.
- Hellstrom Anders and Nilsson Tom. 2010. "We Are the Good Guys': Ideological Positioning of the Nationalist Party Sverigedemokraterna in Contemporary Swedish Politics," *Ethnicities* 1: 55-76.
- Lane Jan-Erik. 2007. "Interpretation of the Swedish Model," *West European Politics* 14(3): 1-7.
- Lewin, Leif. 1998. "Majoritarian and Consensus Democracy: the Swedish Experience,"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21(3): 195-205.
- Lijphart, Arend. 1999. *Patterns of Democracy*,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 Nilsson, Ylva. 2014. "Immigration not a topic for Swedish mainstream parties," *Euobserver*, June 5, 2014.
- Odmalm. Pontus. 2011. "Political Parties and 'the Immigration Issue': Issue Ownership in Swedish Parliamentary Elections 1991 - 2010," *West European Politics* 34(5): 1070-1091.

- Rothstein, Bo. 1998. *Just Institutions Matter: The Moral and Political Logic of Universal Welfare Stat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ydgren, Jens. 2006. *From tax populism to ethnic nationalism: radical right-wing populism in Sweden*, New York: Berghahn Books.
- _____. 2007a. "The Sociology of the Radical Right," *Annual Review of Sociology* 33: 241-262.
- _____. 2007b. "The Power of the Past: a Contribution of a Cognitive Sociology of Ethnic Conflicts," *Sociological Theory* 25(3): 225-244.
- _____. 2020. "Radical Right-wing Populism in Denmark and Sweden: Explaining Party System Change and Stability," *SAIS Review* XXX(1): 57-71.
- Statistics Sweden. 1988. *Allmänna valen 1988 Del 1 Riksdagsvalet den 18 september 1988*.
- Strömblad Per and Bo Malmberg. 2014. Ethnic segregation and xenophobic party preference: Exploring the influence of the presence of visible minorities on local electoral support for the Sweden Democrats, Labour Market and Discrimination Studies Centre, Linnæus University, Sweden.
- Swedish National Data Service. 2002. *VALU 2002 - SVT exit poll survey parliamentary election 2002*
- _____. 2006. *VALU 2006 - SVT exit poll survey parliamentary election 2006*
- _____. 2010. *VALU 2010 - SVT exit poll survey parliamentary election 2010*
- Sundberg, Gunlög. 2013. "Language Policy and Multilingual Identity in Sweden Through the Lens of Generation Y," *Scandinavia Studies* 85(2): 205-232.
- Tragardh, Lars. 1999. "Welfare state nationalism: Sweden and the specter of the European Union," *Scandinavian Review* 87(1): 18-23.

<Abstract>

Swedish Political System in Transition: Focusing on the Rise of the Sweden Democrats

Kwang-Yeong Shin*

This paper explores the nature of the Sweden Democrats in Sweden in the 2000s, analyzing the European Social Survey data.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upporters and explicit orientations of political parties,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rise of new political parties, particularly the Sweden Democrats, reflects social change in the Swedish society or simply it is an outcome of political strategies of political groups. The results display that the rise of Sweden Democrats in Sweden is an outcome of political entrepreneurs' strategies rather than social change itself. It also shows that unlike the other right-wing populist parties in Europe, the Sweden Democrats is a single issue party opposing immigration and immigrants rather than the opposition to European Union. Thus, the sustainability of the Sweden Democrats as a single issue party is questionable in the future.

Key Words : Right-wing populism, Sweden Democrat, single issue party, European Union, Sweden

* Department of Sociology, Chung-Ang University

성명: 신광영
소속: 중앙대 사회학과
E-mail: kyshin20@gmail.com

논문접수일: 2014.8.12.

수정원고접수일: 2014.8.25.

논문심사일: 2014.8.19.

게재확정일: 2014.8.25.

